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몸도… 마음도… 수행도…

'마음쉼터를 가다'

② 춘천 제따와나선원

사람은 누구나 번뇌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번뇌라는 것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끄달리게 되곤한다. 벗어나려는 마음 그 자체가 번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지친 2월 22일이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머리 속에는 맡은 일로 가득차 있고, 여기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얻기를 바랐다. 잠에서 깨자마자 옷가지를 챙겨넣고 길을 떠났다.

차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따와나선원. 다소 생소한 말인 제따와나(Jetavana)지만 이 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기간 머무르며 수행하신 기원정사의 빨리어 이름이었다. 번뇌를 떨치는 방법을 대중에게 알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 재현

제따와나선원은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도량을 표방하는 곳으로 중도 수행을 알리는 곳이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원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지혜로운 수행센터,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수행센터, 승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청정한 수행 공동체를 지향하며 초기 경전에 근거한 수행법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제따와나 선원은 부처님 당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이름을 가져온 만큼 선원 외양도 부처님 당시 사원의 외관과 흡사했다. 인도 기원정사와 나란다 대학 등을 모티브로 벽돌로 만든 건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제따와나란 이름은 부처님 당시의 근본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수행하는 대중의 지향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곳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찰 형태를 고민하다, 벽돌만이 남아있는 기원정사의 모습을 보고 선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에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공수해 온 붉은 벽돌 40만장이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벽돌이 아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든 울퉁불퉁한 벽돌이다. 여기에는 보시된 불자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쓰여 있었다.

전통 사찰 양식은 오히려 수행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제따와나 선원은 사성제 등 불교 가르침을 담되 전통양식을 변형하여 이를 표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따와나 선원을 보면 3개 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량은 일주문을 지나면 첫째 계단에는 종무소, 공양간, 신도숙소, 명상실 등의 건물이 나오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스님들이 머무르는 요사채가 보였다. 세 번째 계단을 오르면 법당과 주수행처인 선방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제따와나선원의 건물 배치는 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과 가까워 진다는 의미를 지니는 듯했다. 법당과 선방까지 가는 길은 한번에 가지 않도록 했다. 여러차례 굽이진 길을 통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여기에 선원 부지 내에는 보통의 전통사찰에 있는 탑이나 석등 같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어디에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했다.

정혜쌍수 의미 담긴 가람

선방 실내는 더욱 특이했다. 한마디로 '보단' 이었다. 사찰에서는 흔한 탱화나 단청 등 장식이 전혀 없었다. 연등조차 사각등으로 만들어 천정 외곽에 넣은 모습이었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카페나 미술관에 와있는 착각마저 들었다.

B2면에 계속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제따와나 선원서 초심자들이 행선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고치현 순례 사찰 (상)
B4 책세상 — 〈업의 그릇을 비워라〉
B5 문화 — '제5회 불교무용대전(BDF), 지평을 넘어'
B6 학술 — 본래 '한 쌍' 협시불, 과학 연구로 찾다